

D.G.F사 재료 수입 · 판매하는 한국니치마케팅 서성덕 대표

한국니치마케팅(대표 서성덕)이 지난 7월 프랑스 D.G.F사의 M.O.F를 초청해 전국 순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자사가 수입 · 판매하는 제과 재료의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 회사 서성덕 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들어 보았다.
<취재 / 박종선 sunpark@mbaker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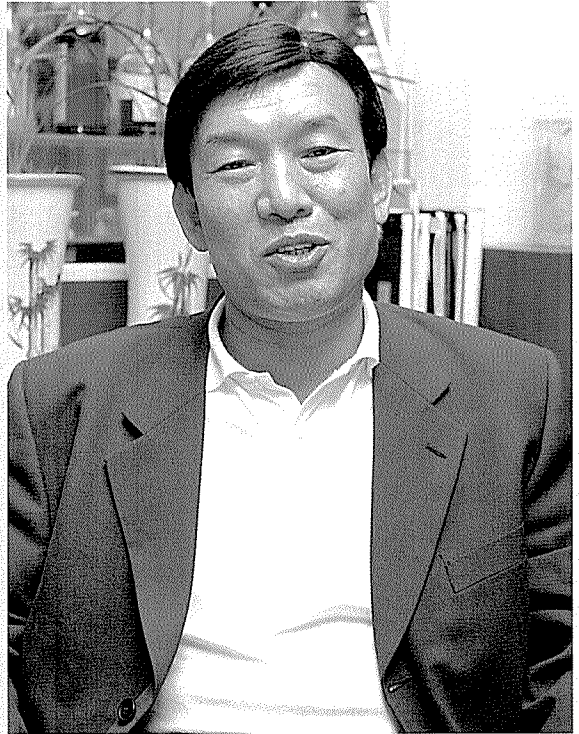
“고품질 재료 공급 · 기술 발전에 일조할 터”

한국니치마케팅의 회사 소개를 부탁한다

제과 재료를 취급하는 26개 재료상과 한국니치마케팅 임직원 등 총 33명이 주주로 참여해 설립된 회사다. 현재 주주인 26개 재료상은 매출 기준으로 전체 제과 재료 시장의 25~3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주주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재료의 구매 · 수입 및 공동 마케팅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라고 할 수 있다.

대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는 주주인 재료상이 원하는 품질과 가격대의 제품을 주문 생산하고, 특정 재료를 공동으로 싼 가격에 구매해 공급하기도 한다. 또 재료상이 거래하는 점포 기술인에게 세미나를 실시해 기술 발전을 꾀하는 활동을 한다. 즉 재료상 개개인에게는 많은 비용이 들어 하기 어려운 일을 우리 회사를 통해 공동으로 전개함으로써 주주인 재료상들의 이익과 발전을 꾀하고 있다.



재료를 수입하는 D.G.F사는 어떤 회사인가?

각각의 재료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여러 회사가 모여 D.G.F라는 업체가 설립됐다. 이 회사에는 19명의 M.O.F가 있는데 해외 기술 세미나를 겸하면서 판촉도 하고 재료 개발도 병행한다. 현재 프랑스 재료 시장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계 25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직접 핸들링하는 제품은 1,500여 가지 정도이며, 나머지 자체 생산하지 않는 재료는 주문 생산해 판매한다.

이번에 주주인 재료상에 공급할 아이템은?

과일튀레, 과일 통조림, 향료, 초콜릿, 광택제 등 30여 가지 정도이다. 초콜릿은 일반적인 커버추어, 프랄리네를 비롯해 국내에는 소개되지 않은 칼라 · 향 커버추어도 선보인다. 광택제와 초콜릿은 가을쯤 들어올 예정이다. 나머지 재료는 이미 7월 중순부터 주주인 29개 재료상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신규 아이템의 확산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지난 7월 1일부터 9일까지 D.G.F사의 M.O.F 2명을 초청해 전국 순회 기술 세미나를 실시하면서 취급 재료를 집중 홍보했다. 앞으로 1년에 4번 정도 M.O.F를 초청할 예정이다. D.G.F는 19명의 M.O.F가 제과학교를 설립해 전문 기술인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1년에 2번 정도 국내 기술인을 이 학교의 전문 기술인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기술 발전에 일조하도록 힘을 예정이다.